

## [보도자료]

이 자료는 2009년 6월 24일(수)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.

### “여성정책, 여성단체와의 만남 통해 녹색성장 지속발전시킨다”

- 한국여성정책연구원 “녹색성장과 여성정책” 주제로 포럼 개최
- 제14차 여성주간 기념하여 생활체감 양성평등 모색

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.

배 포 처 : 한국여성정책연구원

배포 날짜 : 2009년 6월 24일(수)

언론 담당 :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홍보담당 황 애 리

(연락처: 02-3156-7296, 이메일: info@kwdimail.re.kr)

한국여성정책연구원(원장 김태현)은 오는 6월 26일(금) 오후 2시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층 국제회의장에서 “제14차 여성주간을 맞이하여 - 녹색성장과 여성정책”을 주제로 생활 속의 양성평등을 위한 찾아가는 포럼을 개최한다.

<제14차 여성주간을 맞이하여 - 녹색성장과 여성정책>  
생활 속의 양성평등을 위한 찾아가는 포럼: 여성단체와의 만남

- 주제: 제14차 여성주간을 맞이하여 - 녹색성장과 여성정책
- 일시 : 2009. 6. 26 (금), 14:00
- 장소 :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
- 주최 : 한국여성정책연구원

- 한국여성정책연구원(원장 김태현)은 오는 6월 26일(금) 오후 2시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층 국제회의장에서 “제14차 여성주간을 맞이하여 - 녹색성장과 여성정책”을 주제로 생활 속의 양성평등을 위한 찾아가는 포럼을 개최한다.
  
- 본 포럼은 7월 1일 제14차 여성주간을 기념하여 여성부에서 계획, 시행하고 있는 [G-Korea 운동]과 [WE Green 실천단]의 위상 및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시의적절한 제언을 하고자 기획된 행사이다.
  
- 이번 포럼은 [G-Korea 운동]의 주체인 여성부 담당공무원과 ‘G-Korea 여성협의회’를 통해 이 운동의 성격과 향후 과제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
  
- 한편 이번 ‘생활 속의 양성평등을 위한 찾아가는 포럼’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4대 중장기 경영목표 중 하나인 양성평등정책의 실효성 강화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포럼이다.
  
-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태현 원장은 “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향후 다양한 생활체감형 여성이슈를 주제로 찾

아가는 포럼이 지속될 예정”이라고 포럼의 의의를 밝혔다.

\* WE Green(위그린) 이란?

WE는 W(여성-Woman, 함께-With)와 E(환경-Environment, 지구-Earth)의 결합어로 여성과 시민사회가 함께(WE) 생활 속의 녹색성장(Green)을 이끌어 나간다는 의미

\* G-Korea 란?

G-Korea는 녹색생활문화 확산(Green Life), 여성 일자리 창출(Getting Job), 희망 나눔(Giving Hope)을 통해 만들어가는 희망한국을 의미한다.

별첨 1. 프로그램순서

별첨 2. 발표자료

## 별첨. 프로그램순서

### ○ 개회 및 인사말

사 회 : 박수미 동향분석팀장(한국여성정책연구원)

인사말 : 김태현 원장(한국여성정책연구원)

### ○ 발표

김정숙 회장(한국여성단체협의회) **녹색성장과 여성시민단체의 협력 방안**

김연화 원장(한국소비생활연구원) **녹색성장과 소비자로서의 여성**

### ○ 패널토론

박정희 총재(그린웨이퍼리운동연합) **G-Korea 운동의 저탄소 녹색성장**

김현호 소장(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균형개발지원센터)

**녹색성장과 여성일자리 창출**

이수연 연구위원(한국여성정책연구원) **녹색성장과 젠더**

이기순 여성경제위기대책추진단장(여성부) **녹색성장과 여성시민운동의 방향**

## 한국여성정책연구원

한국여성정책연구원(원장 김태현, [www.kwdi.re.kr](http://www.kwdi.re.kr))은 1983년 개원한 여성정책 전문연구기관으로서 2007년 5월 한국여성개발원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으로 기관명을 바꾸고,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 Think-Tank 역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. 여성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여성정책 및 여성 능력 개발, 여성 연구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, 복지 증진과 가족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국책연구기관이다.

보도자료 끝.